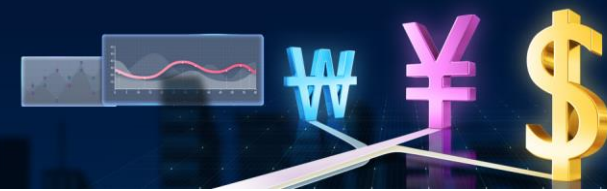


# Eugene's FICC Update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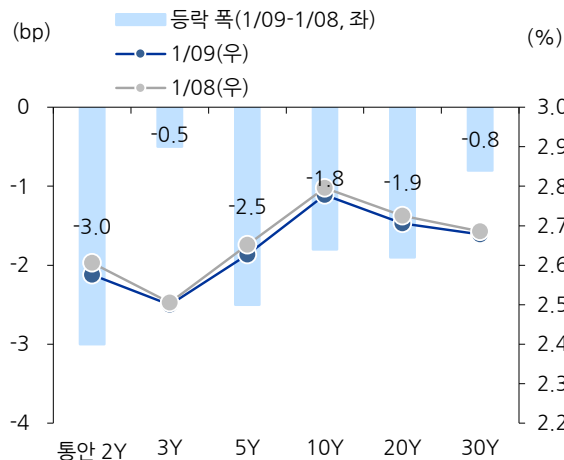
Fixed Income 김지나\_02)368-6149\_jnkim0526@eugenefn.com Economist 이정훈\_02)368-6176\_jhoonlee@eugenefn.com RA 유재혁\_02)368-6177\_dbwogur170@eugenefn.com

## Fixed Inc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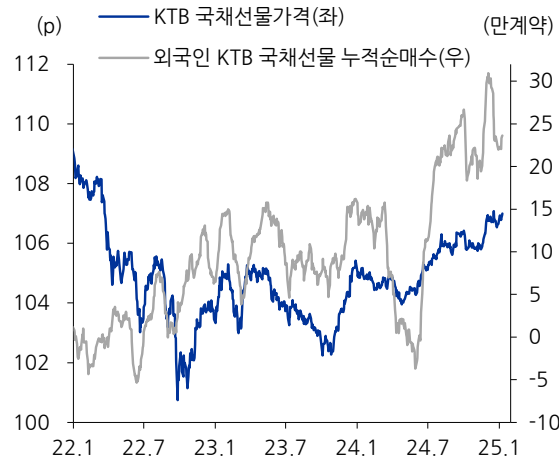
(단위: %,bp, 톱)

	1/9일	1D	1W	YTD
국내 채권	한국 국고채 3년물	2.500%	-0.5	-0.7
	한국 국고채 10년물	2.778%	-1.8	-7.7
	장단기금리차(10년-3년,bp)	27.8	29.1	24.2
	3년 국채 선물(KTB)	107.00	7.0	11.0
	10년 국채 선물(LKTB)	117.98	10.0	31.0
해외 채권	미국채 2년물	4.262%	-2.4	2.3
	미국채 10년물	4.664%	-2.7	7.9
	장단기금리차(10년-2년,bp)	40.2	40.5	32.0
	독일국채 10년물	2.540%	2.4	16.1
	호주국채 10년물	4.487%	-1.5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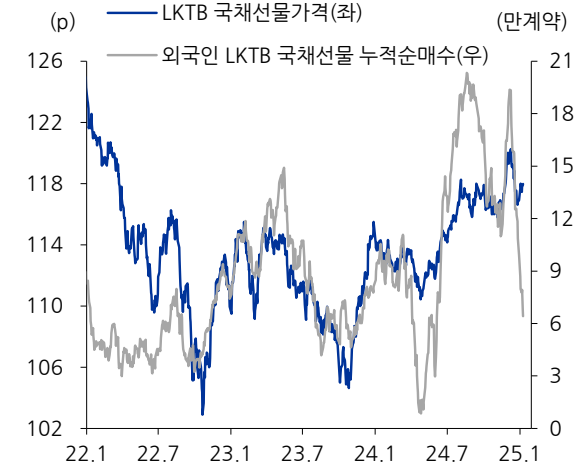
## 일간 금리 등락 폭 & 커브



## 외국인 3년 국채선물(KTB) 수급



## 외국인 10년 국채선물(LKTB) 수급



## 국내 채권시장 동향

- 국내 채권시장 강세 마감. 특별한 재료 없이 수급 및 대외금리 연동
- 약보합세로 출발했으나 차츰 강세폭 확대. 아시아장 중 미국채 금리가 하락하며 흐름을 뒷받침. 호주 국채 금리도 함께 하락
- 외국인, 대체로 국채선물 순매도 이어감. 금통위 앞두고 레벨부담 커진 모습. 대신 장 후반 3년물 순매수 전환. 은행, 증권 중심 국내 기관 수요는 양호
- 오후 중 추경 언급은 기존 입장 반복에 그쳐 영향 제한. 야당, 민생경제 회복 위해 추경은 절실하고 긴급함을 강조

## 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

- 미국 채권시장 강세 마감
- 이날 채권시장은 카터 전 대통령 장례식으로 오후 2시 마감. 평소보다 거래 한산한 가운데 단기간 약세 과격했다는 인식 속 금리는 하락
- 한편 연준측 인하 신중 발언은 지속. 지난해 유일하게 9월 빅컷 반대했던 보먼 이사, 올해 추가 인하 반대.
- 이외 보스턴 연은 총재, 올해는 더 적은 횟수 인하 지지.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추가 인하는 있겠으나 시점은 불확실하다는 입장
- 금일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 예정

자료 출처: 연합인포맥스, Refinitiv, 유진투자증권

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 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고,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전송/인용/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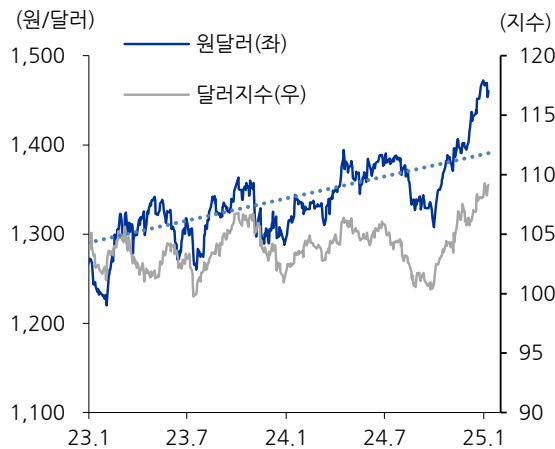


## FX & Commod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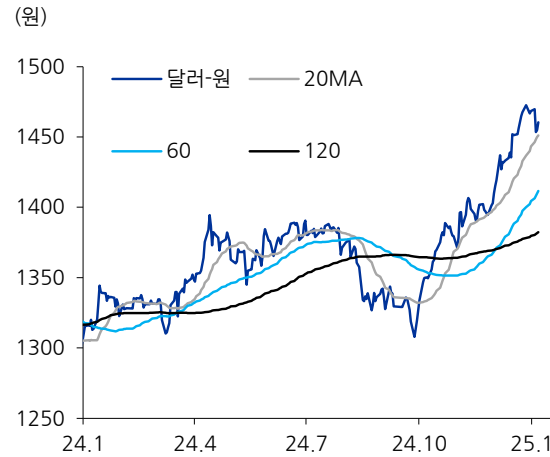
(단위: %, \$)

	1/9일	1D	1W	YTD
원/달러	1,460.50	0.4%	-0.4%	-0.8%
달러지수	109.15	0.1%	-0.1%	0.7%
달러/유로	1.030	-0.1%	0.4%	-0.5%
환율 위안/달러(역외)	7.36	0.0%	0.2%	0.3%
엔/달러	158.13	-0.2%	0.3%	0.7%
달러/파운드	1.231	-0.4%	-0.5%	-1.6%
헤알/달러	6.04	-1.2%	-1.9%	-2.4%
WTI 근월물(\$)	73.92	0.8%	1.1%	3.1%
금 현물(\$)	2,669.70	0.2%	0.4%	1.7%
구리 3개월물(\$)	9,111.50	0.9%	3.5%	3.9%

## 원달러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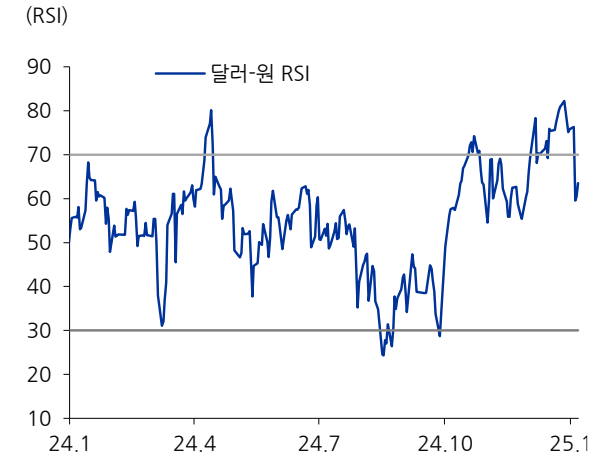
## 원달러 환율 및 이동평균선



## 원달러 환율 동향

- 달러-원 환율은 서울외환시장에서 +5.50원 상승한 1,460.50원에 마감. 야간거래에서는 1,460.00원 마감.
- 간밤 트럼프 당선인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에 달러 강세가 나타났고 달러-원도 +3.60원 상승 출발.
- 오전 중에는 연금 환헤지 물량 경계감 속 매도 물량이 출회되면서 보험권까지 밀렸지만 오후 들어 주요국 통화 부진 속에 장마감 전까지 반등세가 지속.

## 원달러 환율 상대강도지수



## 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

- 달러 인덱스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과 파운드화 약세를 소화하면서 강보합.
- 간밤 다수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나왔음. 전일 월러 연준 이사는 디스인플레가 꾸준히 추가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언급했지만, 이날 보면 이사는 현재 금리가 중립 수준이며 추가 인하에 반대한다고 발언. 필라델피아, 캔자스 연은 총재도 신중한 발언을 이어감.
- 파운드화는 영국 재정에 대한 불안감이 이어지면서 이틀 연속 급락. 반면 엔화는 11월 임금 상승률이 호조를 보이면서 1월 금리 인상 기대감에 약세 폭을 축소.